

특허청, 지식재산(IP) 서비스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

- 산업재산정보법 시행('24. 8. 7.)에 따른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-
- 개방 수요가 높고 활용이 용이한 수요자 맞춤형 산업재산정보 보급 계획 소개 -
-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8. 8.(목)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(서울시 강남구 소재)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(IP) 서비스기업*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선행특허 검색, 조사·분석, 컨설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

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(IP)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『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: ‘산업재산정보법’)』 시행('24. 8. 7.)에 따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,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특허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(IP) 서비스 기업들과 관련된 산업재산 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, 수요 및 활용도가 꾸준히 증가*하고 있는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앞으로의 보급 계획도 소개한다.

* 특허정보 이용기관 : ('21년) 336개 → ('22년) 418개 → ('23년) 481개 (연평균 20% 증가)

특허정보 상품 활용 : ('21년) 2,326개 → ('22년) 2,881개 → ('23년) 3,729개 (연평균 27% 증가)

또한, 간담회를 통해 지식재산(IP)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산업재산정보 데이터베이스(DB)에 대한 수요, 산업재산정보 관련 인력 양성 방안,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및 민간 산업재산정보 서비스의 개발·상용화와 관련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.

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“앞으로도 지식재산(IP) 서비스 기업 고객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”이라면서 “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다수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·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※ 붙임: 지식재산정보(IP) 서비스 기업 간담회 개최 개요

※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일승 (042-481-5460)
		담당자	주무관	이석희 (042-481-5587)

□ 간담회 개요

- (목적) 산업재산정보법 및 데이터 보급 계획 소개, 민간 IP서비스 기업 의견 수렴 등 현장 소통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
 - 간담회 간 도출된 민간IP서비스 업계의 의견 및 개선점 등을 반영하여 산업재산정보법 기본계획 등에 반영
- (일시·장소) '24년 8월 8일(목), 14:00 ~ 16:00,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(서울 역삼동 소재)
- (참석 인원) 특허청, 산하기관 및 IP정보 서비스 기업 등 총 14명
 - (특허청) 산업재산정보국장 등 5명
 - (산하기관) 한국특허정보원 담당자 등 2명
 - (IP정보서비스 기업) 위트인텔리전스, 애니파이브, 웹스 등 7개 기업

□ 세부 일정(안)

시간	내 용
14:00 ~ 14:10	○ 개 회 및 참석자 소개
14:10 ~ 15:50	○ 간담회 주요 논의 안건 ① 산업재산정보법 및 데이터 보급 계획 소개 ② IP서비스 업체의 요구사항 수렴
15:50 ~ 16:00	○ 마무리 말씀(산업재산정보국장)
총 2시간	